

Paul S. Atkins (1958~)

Chairman of the U.S. SEC (2025.4.21.~)

밴더빌트대학 로스쿨; SEC 위원 경력(2002-2008); 규제 정책에서 자유-시장 원칙을 주창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 취임한 폴 앳킨스 미국 SEC 위원장이 9월 10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한 OECD 원탁회의”(@프랑스 파리) 기조연설에서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Keynote Address at the Inaugural OECD Roundtable on Global Financial Markets

Paul S. Atkins, SEC Chairman

프랑스 파리 / 2025년 9월 10일

프로젝트 크립토 (Project Crypto)¹⁾

우리가 동료 회원국들에 각 관할권에서 투자자 신뢰와 역동적 시장을 조성하자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미국 내에서 디지털자산의 잠재력(potential of digital assets)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후반에 저는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 콩코르드 광장에서 약 4km 떨어진 데서 일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때 무시당했거나 완전히 저항을 받기도 했으나 이제 글로벌 파이낸스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들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현재의 제 역할로 돌아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르 위고 애비뉴에서 몇 걸음 떨어진 이곳이다 보니,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을 우리 시대에 다시 불러들이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의 침략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의 침투에는 저항할 수 없다”-군대가 침략해 오는 건 저항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시대가 열린 아이디어에는 그럴 수 없다(“on résiste à l'invasion des armées; on ne résiste pas à l'invasion des idées”-an invasion of armies can be resisted, but not an idea whose time has come)라는 말입니다.²⁾ 신사 숙녀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크립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crypto's time has come).

1) [역주] 미국에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제목의 1월 23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범정부 대표들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실무단(PWG on Digital Asset Markets)이 구성됐고, 지난 7월 30일, 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같은 제목으로 된, 166쪽 분량의 실무단 보고서(PWG's Digital Asset Market Report)를 발표하였음. 실무단(PWG)의 일원이었던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 보고서에 적시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SEC의 “Crypto Project” 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고; 역시 PWG의 일원이었던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도 CFTC의 “Crypto Sprint” 착수 계획을 8월 1일 발표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SEC와 CFTC 간의 디지털자산 규제 조율을 위한 공동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임. SEC의 Crypto Task Force는 8월 4일부터 12월까지, 미 전역 10개 주요 도시를 돌며 공개적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기도 함(SEC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 예정).

2) Victor Hugo, The History of a Crime (1877).

SEC는, 너무도 오랫동안, 기관이 가진 조사, 소환, 법 집행 권한(investigatory, subpoena, and enforcement authorities)을 무기 삼아 크립토 산업을 암호화폐 산업을 뒤엎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효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웠습니다(not only ineffective, but injurious); 일자리(jobs), 혁신(innovation), 그리고 자본(capital)을 해외로 내몰았습니다. 미국 기업가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고—사업은 커녕 법적 방어선을 구축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런 장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That chapter belongs to history).

SEC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시방편적 법 집행 조치(ad hoc enforcement actions)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³⁾ 우리는 미국에서 혁신가들이 번성할 수 있게 표지판 역할을 할 명확하며, 예측할 수 있는 규칙(clear, predictable rules of the road)을 제공해 나가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와 행정부처에서 저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담당자들에게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만들라(making America 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는 임무를 부여했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 시장 실무단(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은 그렇게 노력해 갈 우리를 이끌 과감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의회가 포괄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실무단은 미국 규제당국들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규정집(outdated rulebooks)을 신속하게 현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SEC에서 우리는, 미국의 시장들이 온체인(on-chain)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증권 규칙과 규정들을 현대화하는 포괄적 대책(sweeping initiative)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크립토 자산들의 증권 지위에 관한 확실성(certainty regarding the security status of crypto asse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립토 토큰들의 대부분은 증권이 아닙니다(most crypto tokens are not securities), 우리는 그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이 끝 모를 법적 불확실성 없이(without endless legal uncertainty) 온체인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는 “슈퍼-앱”을 갖춘 매매거래 플랫폼 혁신(“super-app” trading platform innovation)을 허용해야 합니다. 플랫폼들은 매매(trading), 대여(lending),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를 단일 규제 체계하에서(under single regulatory umbrella)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⁴⁾ 투자자들, 자문업자들, 브로커-딜러들 역시

3) [역주] PWG의 DAM Report에서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가 규정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법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에 나선 결과 적대적 환경이 조성됐던 점을 비판하며,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의 बैं킹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숨통 조이기 작전’(Operation Choke Point 2.0)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음(보고서 원문 5, 7, 63-71쪽).

4) [역주] PWG의 DAM Report에서는 SEC와 CFTC에 등록된 업자들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면허 체계하에서 복수의 사업 분야(multiple business lines)에 종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이고(보고서 원문 6쪽); 매매와 보관관리 서비스를 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bundle trading and custody) 허용하고(보고서 원문 52쪽, 142쪽); 장기적으로는 등록 사업자들이 단일 유저 인터페이스 내에서(within a single user interface) 복수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해 SEC와 CFTC가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offering flexibility)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권고하고 있음(보고서 원문 143쪽).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해상충 요소를 해소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등록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등록 사업자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내에 여러 금융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제 제도가 채택된다면, 마찰 지점을 줄이고 이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거래교환 서비스와 브로커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동일한 기술 스택으로 고객 주문을 곧바로 연결해 처리할

복수의 커스터디 솔루션(multiple custody solutions) 중에서 선택한 자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SEC는, 최근 발표된 실무단 보고서와 보조를 맞추면서, 다른 기관들과도 협력하여 한 플랫폼이 단일 규제 체계하에서 스테이킹과 렌딩 같은 서비스들과 함께, (증권에 해당하는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자산들의 매매(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규제 당국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효과적 규제만(the minimum effective dose of regulation) 제공해야 하지, 그 이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업가들에게 대기업들만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중첩되는 규칙들(duplicative rules)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래 장소와 상품 경쟁(venue and product competition)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는 미국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운동장에서(on a level playing field) 경쟁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건설자들의 나라(nation of builders)”라고 부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SEC는 그러한 건설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관료주의적 규제하에서 숨막히지 않게(not suffocate under red tape)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 땅 위에 금융 혁신이라는 황금기를 여는 것입니다(to spark a golden age of financial innovation on U.S. soil). 토큰화된 주식 원장들을 통해서든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을 통해서든, 우리는 미국의 감독 장치 하에서,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이 되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we want breakthroughs to be made in America's markets, under American oversight, for the benefit of American investors).

국제적 파트너들과 보조를 같이할 기회

Opportunity for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unterparts

물론, 이러한 우선순위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의 명확성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그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자본이 시장의 가장 생산적인 용처로 자유롭게 흐를 때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개방형 블록체인들(public blockchains)은 지급결제와 자본시장의 토대를 현대화할 드문 기회(rare chance to modernize the foundations of payments and capital markets)를 제공합니다. 서로 협력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대서양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다시 강화하면서 양측의 국내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은 인정받고 있듯이, 아주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PWG의 디지털자산 시장 보고서(Digital Asset Market Report)도 인정하듯이, 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은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제도(comprehensive digital asset regime)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분산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대체-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s), 디지털자산 대여(digital asset lending)를 다루기 위해 “MiCA 2”를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⁵⁾ 저는 우리의 유럽 동맹국들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해 주려는 이러한 앞선 시도에서

수 있게 되면서 운영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combining exchange and broker services allows for economies of scale and reduces operational complexity by permitting straight-through processing of customer orders with the same technology stack)고 언급하고 있음.

보여주는 선견지명(foresight in this initial attempt at regulatory clarity)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도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저의 확고한 생각은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뒤처지지 않게** 한다(ensure that America is second to none in fostering an economic climate that supports financial innovation)는 것입니다.⁵⁾ 우리가 따라잡으면서, 저는 더욱 혁신적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반자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서로 협력한다면, 토크빌(Alexandre de Tocqueville)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와 번영의 “지평을 넓혀갈”(“extend the sphere” of freedom and prosperity)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금융: 시장 혁신의 새로운 시대

AI and Finance: A New Era of Market Innovation

저희 쪽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 리더십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America's financial leadership depends on charting the future, rather than fearing it). 우리가 자산들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방식을 블록체인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에이전트 금융**으로 가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AI is opening the door to agentic finance)—에이전트 금융이란 그 코드 내에 증권법 준수 체계가 내장된,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매매를 실행하고, 자본을 배분하며,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a system whereby autonomous AI agents execute trades, allocate capital, and manage risk at speeds no human can match, with securities law compliance embedded in its code).

AI 에이전트에 의해 작동되는 금융이 가져올 혜택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돌아가는 시장(faster markets), 더 낮아진 비용(lower costs), 그리고 한때 월가의 거대 기업들만 누릴 수 있었던 전략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broader access to strategies)가 그 예입니다. AI를 블록체인들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는 개개인들의 능력을 배가하고(empower individuals), 경쟁을 강화하며(strengthen competition),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열 수 있습니다(unlock new prosperity).

여기서 **정부의 책무**는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 장벽들(regulatory obstructions)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상식에 맞는 안전장치(common sense guardrails)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AI는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그 역할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과잉 반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온체인으로 옮겨탄 자본시장(on-chain capital markets)과 에이전트 금융의 지평이 열렸고(on the horizon), 세계가 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놓인 선택지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the choice before us is simple

5) 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60-61 (July 30, 2025), available at: <https://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7/Digital-Assets-Report-EO14178.pdf>.

6) 위 PWG DAM Report 59쪽에도 나와 있는 내용.

yet profound): 미국이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갈 것인지(step forwards),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시장, 우리의 경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리더십, 자유, 그리고 성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번성하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저희의 노력(pursuit for a more prosperous and free society)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혁신가와 기업가들이 번성해 나갈 충분한 여지를 마련해 주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그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앞으로의 규제 정책들(future regulatory initiatives)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SEC에서 새로운 날이 *열렸고*,(it is a new day at the SEC), 우리는 당 기관이 오래도록 견지해 왔던 원칙들을 새롭게 다가온 가능성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있습니다(realign the agency's enduring principles with emergent possibilities). 제가 말씀드린 규제 사안들에 대한 국제 협력은 장기적으로는, 미합중국 전역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찾아온 여러 기회에 걸맞은 결의로, 이러한 협업 과제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여타 주제>

- **Special Accommodations for Foreign Issuers** (외국 증권 발행자들을 위한 특별 우대장치)
- **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s** (고품질 회계처리 기준 - 미국 GAAP과 조율할 필요 없이 IFRS를 적용한다는 내용)
- **Financial Materiality** (금융에 미치는 중요도 즉, 기업이 창안해 내는 상품, 서비스, 일자리에 힘을 보태주는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둔 공시 요건, 기업 경영지배구조 표준 및 여타 규정이면 족하지, 비-금융성 요소를 고려하는 double materiality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 제도는 부담만 초래한다는 내용 - 최근 EU에서 제정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와 같은 이중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규제 방식(double materiality regulatory approach)은 EU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중의 중요도 대신 금융성 중요도(financial materiality)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제도에 초점을 맞춰 이 법규들을 간소화,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2025년 9월 16일
피터젠 드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